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 '명절 합동 차례'

보성군, 19일 홈페이지 생중계·추석 당일 방영

보성향교 유도회 주관·차례상에 차를 올리며

녹차수도 보성군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고향방문이 어려운 출향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위해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에 '명절 합동 차례'를 지낸다.

합동차례는 9월 19일 보성세계차엑스포 공식홈페이지 방송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송출되고, 일반인이 보기 편하게 편집해서 추석날 아침 9시 보성군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보성세계차엑스포 특별무대에서 진행되는 '합동차례'는 보성향교 유도회에서 주관하며, 녹차수도에 걸맞게 차례상에 차를 올리며 차례의 기원과 의

미를 되짚어 본다.

또한, 다양한 차례의 모습을 시연하며 차와 술을 올리는 차례, 차만 올리는 차례, 도시에서 간편하게 지낼 수 있는 차례 등 사례별로 차례 지내는 법과 유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보성세계차엑스포 유튜브 채널 구독과 댓글을 달고, 엑스포 공식홈페이지에서 차례상 차 올리기를 신청(신청수 1,000명)하면 차례상에 올릴 보성녹차(20g)와 보성쌀(500g)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선물은 22일부터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이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쉽지만 올해는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합동차례를 통해 마음으로 예를 다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세계차엑스포 홈페이지(www.bsworldteaexp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조상에 차를 올리는 풍습은 우리나라에 차가 전래한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명절 차례에서 차 대신 술이 등장한 것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으로 국가경제가 파탄된 상황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걱정할 영조 임금에 왕명으로 '귀하고 비싼 차 대신 술이나 뜨거운 물, 즉 송농을 쓸 것'을 지시한 후부터라고 한다.

보성=김덕순 기자



제1대 글로벌 크리에이터 양성

순천시, 디지털노마드 시대 대표 일자리 형태

순천시가 순천을 대표할 제1대 글로벌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2020 글로벌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 크리에이터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창작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창작자로, 시간이나 장소 제약없이 기본적인 디지털 장비만으로도 수익창출이 가능한 디지털노마드 시대의 대표적인 일자리 형태이다.

교육기간은 오는 10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20회에 걸쳐 이

론 20시간과 실습 12시간 총32시간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영상 촬영 및 편집기술, 수익모델 변화과정 사례공유 및 비전제시, 크리에이터의 생태계와 수익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교육관정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만19세 이상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오는 23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여수시, 가을꽃 8500본 식재

소라면 관광지 등 5개소 100여명 참여



여수시 소라면에서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노을이 아름다운 여주만 해안도로 및 관광지 주변 5개소(7,200m)에 가을꽃 8,500본을 식재했다.

이번 가을꽃 심기 행사에는 최근 3일간 새마을지도회, 생활개선회, 이장단협의회 및 주민 등 100

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메리골드, 베고니아, 페튜니아 등을 식재했다.

이번 가을꽃 식재에 참여한 자생단체들은 잡초제거 및 물주기 등 꽃밭을 가꾸어 세계적 꽃피는 아름다운 여수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박홍상 소라면장은 "꽃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및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고흥군, 취득세 신고납부 제도 개선...납세자 불편 해소

토지 지목 변경...토지 가액 증가할 때 부과

고흥군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직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2.5/10,000)가 가산되어 과세된다.

고흥군은 군민들이 지방세의 이해와 관심부족으로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취득자의 방문신고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과세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고지서를 수령한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함으로써,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민 옆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거동 불편 어르신 100세대 한옥 토방개선사업 진행

순천시는 지난 5월부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00세대에 한옥 토방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주거안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세대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돌봄사업이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의 세 분야로 추진되며, 그 중 주거사업의 일환으로 마루와 토방간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주거안전과 편의의 제공을 위해 토방개선사업을 시작하였다.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로 각 대상자에게 적합한 계단, 경사로, 난간,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대상자의 생활방식 개선을 통하여 더욱 질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

하였다. 송광면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은 "수십년 파킨슨 병을 앓아다니는 다리에 힘이 없어 마루에서 넘어져 다치곤 하였는데 토방에 계단과 난간대를 설치해줘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게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포용적인 돌봄 시책을 개발하여, 노후생활을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예비취업자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 업무협약

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는 2009년 2월에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향만물류 전문 고등학교로, 동북아 및 세계 물류시장에 부응하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여 취업률이 90%가 넘는 지역 명문 고등학교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예비취

업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광역세일센터는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지역 특성 화고를 대상으로 '취업, 날개를 달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사와 직업상담사를 파견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